

6세기 신라 사회 네트워크의 암호, 목간

옥재원, 107호 가야실 18:00~18:30

신라실 한 곳에 놓인 진열장 안에는 특이하게 생긴 나무 조각 9점이 모여 있습니다. 조각들은 길이가 한 뼘 정도에다 가늘기도 하여, 멀리서 보면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다가가서 보면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몇 자 되지 않는 글자들로 흥미진진하고 무궁무진한 역사 정보를 담고 있는 나무 조각, 바로 ‘목간’입니다.¹⁾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의 여러 사회를 중심으로 행정·수취·교역·생활·학습·신앙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해온 기록물입니다.

발견 사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나라가 서로 각축하던 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헌 사료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드물게 발견되지만 생생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목간은 지나간 시간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실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들은 6세기 중반, 신라 중앙 정부가 아라가야의 중심지였던 함안지역을 장악하고 이곳을 지방 거점으로 삼기 위해, 각지에서 물자를 동원해가며 산성을 쌓았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우선 ‘군명+촌명+인명+관등(관위)+물품명+수량’, ‘촌명+인명+관등(관위)+물품명+수량’과 같이 서식이 일정한 점, 감문甘文(김천)·구리벌仇利伐(옥천)·고타古陀(안동)·추문鄒文(의성) 등 소맥산맥 일원의 각지에서 마련된 물자가 함안지역에 집하된 점 등은 6세기 중반, 신라 중앙 정부가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정보를 매개로 지방을 연결하고 관리했던 현황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물품에 딸린 작은 꼬리표들로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갖가지 정보들이 넘쳐나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 속도는 매우 빠르며, 유통 범위도 아주 넓습니다. 그에 비해 폐기 수량은 꽤 적어 많은 정보들이 쌓여갑니다. 정보를 잘 찾아 고르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실에서 목간을 읽고 과거의 정보들을 선별하면서, 정보 순환 환경이 오늘날과 제법 달랐던 때, 기록을 짓고 쓴 사람의 지식·지혜와 아울러 정보가 신라 내외의 사회 곳곳과 사람 각각을 이은 실상을 상상해 봅니다.



그림1. 신라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1) 8월 21일까지 신라실 휴실 관계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가야실에서 진행합니다.

제68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10일)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4)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쿠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제68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10일)

췌기문자 점토판 속 이야기

양희정, 306호 메소포타미아실 19:00~19:30

문자의 발명은 문명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최초의 문자가 기원전 3400년 무렵 이라크 남부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초기에 작성된 문서들을 보면 문자가 주로 회계에 쓰인 것은 맞지만, ‘용어 목록’ 처럼 다른 범주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오직 경제적 목적에서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주장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료와 과학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역사,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충적토로 만든 점토판에 갈대 침필로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이들의 문자는 특징적인 췌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원래 슈메르어를 적으려고 고안되었지만 곧 악카드어를 쓰는 데도 차용되었고, 마침내 근동 지역 전역에서 사용된 많은 언어에 췌기문자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필경사들은 대부분 번역에 능통했고 여러 언어를 동시에 쓰는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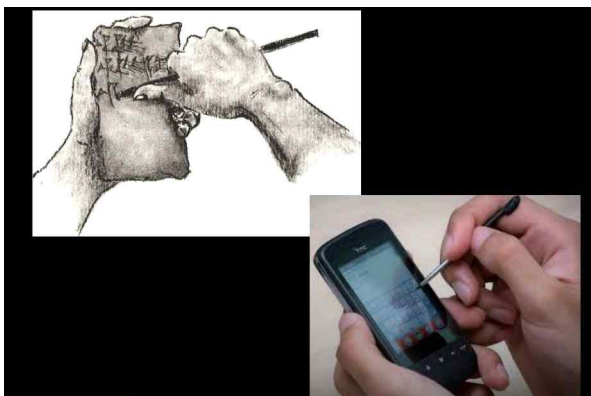


그림1 고대와 현대의 문자 쓰기



그림2 <슈메르어-악카드어 가축 용어 목록>, 기원전 약 500~1년, 점토,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86.11.121)



제68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10일)

실경으로 떠나는 동해 피서

이재호, 202-4호 서화Ⅱ실 19:00~19:30

무더위에 지친 요즘, 일손을 놓고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깨끗한 모래와 푸른 바다, 솔숲과 호수가 바닷가 따라 이어진 동해안은 예로부터 누구나 꿈꾸었던 피안彼岸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려의 문인 안축安軸(1282~1348)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은 동해안의 주요 명승을 노래한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정철鄭澈(1536~1593), 허목許穆(1595~1682) 등 수많은 문인의 시와 유람기는 태백산맥을 넘어 망망한 동해를 마주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기부터 동해안 절경은 실경산수화로 포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주요 명승지를 정형화한 그림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서화실에서는 이번 여름 동해안 실경산수 세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윤익성·윤광자가 기증한 <경포대>와 <충석정>은 16세기 중반의 오래된 동해안 실경산수입니다. 1557년 상산일로商山逸老가 홍연洪淵과 관동지방을 유람하고 유람기를 지었는데, 이후 나이가 들었을 때 화가에게 실경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시를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 다시는 갈 수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풀리지 않는 그리움을 자위할 따름이다.” 라는 말에 젊은 시절 여행의 추억을 되살려보려는 노년의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경포대>는 옛 실경산수와 지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우측에 동해바다, 좌측에 경포호수를 그렸는데 초당, 죽도, 강문교 등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지명을 그림 곳곳에 써 넣었습니다. 멀리 오대산이 솟은 풍경을 조선 전기 화법으로 그려 이채롭습니다. <충석정>은 더욱 극적인 구도입니다. 바다에서 수많은 돌기둥이 솟아올라 삼각형 구도를 이루었는데, 돌기둥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기둥 위에 위태롭게 자라난 소나무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묘사 덕분에 실경의 웅장함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김하종金夏鐘(1793~1878 이후)의 <충석정>은 춘천부사 이광문李光文(1778~1838)의 금강산 유람에 동행하여 그린 《해산도첩海山圖帖》의 일부입니다. 16세기 그림과 비교하면 바다 위에서 충석정을 바라본 시점은 비슷하지만 한층 사실적인 구도와 표현이 돋보입니다. 부친 김득신金得臣을 비롯해 수많은 화원을 배출한 개성 김씨 가문의 화가이지만,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가 확립한 금강산과 관동 팔경 실경산수의 요체를 잘 소화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몸은 서울에 매여 있지만 마음은 속 시원한 자연 속에 노니는 와유臥遊를 서화실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